

# 영향에 대한 불안과 새로운 부녀서사의 등장\*

박진숙\*\*

**초록** 이 논문은 정지아의 『아버지의 해방일지』(2022)와 예소연의 『그 개와 혁명』(2024)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사에 새로운 부녀서사가 등장하고 있음을 규명하였다. 두 소설은 모두 딸이 화자가 되어 아버지의 장례식을 중심으로 그 삶을 반추하며, 자신의 삶에 드리운 아버지의 흔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연대로 나아간다. 기존의 다소 관념적인 부녀서사와 달리 이 작품들은 한국 사회의 이데올로기와 아버지의 삶이 갖는 관계에 초점을 맞춰 아버지 시대 이후의 삶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보여준다.

정지아의 『아버지의 해방일지』는 카뮈의 『이방인』의 영향에 대한 불안이 텍스트의 무의식으로 활용되어 있다. 소설 속에 『이방인』을 직접 언급하고, 태양에 대해 묘사하며 부조리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쓰는 등 영향과 극복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빨치산 아버지의 그 이후의 삶과 한국사회의 이념을 둘러싼 부조리를 『이방인』을 빌려 말하고 있다. 예소연의 『그 개와 혁명』에서는 586세대 아버지의 투병과 죽음, 장례식을 거치며 화자인 딸이 아버지를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계승한다. 『이방인』에서 피르소가 죽음 직전 해방감을 느끼며 ‘엄마’를 이해하게 되는 짧은 장면이 확대된 듯한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정지아는 장례식을 통해 애도를 완성하고, 예소연은 투병하는 아버지에 대해 깊은 사랑을 깨닫는다.

이처럼 두 소설은 아버지의 죽음으로 시작해, 아버지 부재의 고통이나 관념적 극복을 넘어서는 새로운 이해와 연대로 나아간다. 한국 현대사 전개와 2020년대 사회의 발전 및 이면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문학사적으로 의미 있는 새로운 부녀서사의 출현을 알린다.

**주제어** 이방인, 영향에 대한 불안, 부녀서사, 아버지의 해방일지, 그 개와 혁명, 부조리, 애도, 연대

\* 이 논문은 2025학년도 충북대학교 학술연구영역 사업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충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1. 머리말

세계문학뿐만 아니라 한국문학에서도 가족관계를 다룬 소설은 인간 삶의 근원적인 문제와 사회의 변화 또는 시대상황을 담고 있어 매우 중요하다. 가족관계를 다룬 소설의 주요 내용은 대체로 부자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연구도 그렇게 이루어져 온 경향이 있다. 모녀관계를 중심으로 한 소설은 모녀관계를 통해 여성의 문제가 반복되는 경향을 보여 여성의 문제를 부각하기는 하지만, “여성 주체를 딸과 어머니라는 고정적 관계성으로 환원하”여 “성차별에서 오는 억압을 여성과 여성 사이의 권력관계로 치환할 위험을 내포한다.”<sup>1</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녀서사를 다룬 연구 중 최경희의 박사논문은 역사를 중심에 놓고 제국의 모습과 식민지 여성을 중심으로 모녀관계를 설명하고 있다<sup>2</sup>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부녀서사<sup>3</sup>에 대한 논의 역시 역사와 이데올로기, 혁명 등이 개입되어 한국사회의 시대적 흐름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이 부녀서사 논의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한국 현대사의 큰 사회적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선 최원식의 문제제기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최원식은 한국 문학사에 매우 흥미로

1 손유경(2019), 「젠더화된 세대교체 서사를 패러디하기」, 『한국현대문학연구』 58, 한국현대문학학회, p. 367.

2 Choi, Kyeong-hee (1996), “When the Colonized Mother Speaks: Post-colonial and Maternal Narratives of Toni Morrison, Pak Wanso, and Buchi Emecheta”, Ph.D. diss., Indiana University.

3 부녀관계를 다룬 서사를 ‘부녀서사’로 명하기로 한다. 한국문학사에서 부녀서사에 관한 연구는 고전소설 분야에서 많이 이루어져 왔다. 「심청전」, 「바리데기」 등을 중심으로 무력한 아버지와 구원자 딸, 효 정신에서 딸의 귀환과 부친의 각성, 아버지로부터의 분리, 그리고 여성의 자기성장이라는 문제의식으로 발전해왔다. 다음 논문 참조.

이승수·김용선(2019), 「심청전의 부녀관계와 서사구조」, 『동아시아문화연구』 79, pp. 199-225.; 김수연(2021), 「부녀서사의 전통과 현대 콘텐츠의 서사적 분기」, 『문학치료연구』 61, 문학치료학회, pp. 129-166.

운 현상이 두 가지 있다고 하면서 한국 시가의 여성주의와 현대소설의 아버지 부재에 대해 의미화를 시도한 적이 있다.<sup>4</sup> 또 나병철은 아버지 부재가 오히려 여성의 성장 서사를 이루었다고 분석한 바 있다.<sup>5</sup> 최근 손유경은 “한국 현대소설에 나타난 부녀관계의 형상화”에 주목하여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으며, 이를 “여성주의의 성장으로 특징지어지는 지난 30여 년 동안의 한국문학이 우리시대의 첨예한 세대-젠더 이슈에 개입해 온 양상을 탐구하려는 작업의 일환”<sup>6</sup>이라 밝히고 있다. “아버지”와 ‘젊은 딸’의 관계를 그리는 세대-젠더의 역전이 일어나고 있는 오정희, 김향숙, 권여선, 김사과, 김이설, 김경옥, 은희경의 소설들을 중심으로 이들 작품이 성장 서사의 레퍼토리로 익히 알려져 있는 ‘父의 부재’나 ‘부친 살해’의 신화를 적극적으로 탈신화화하면서 ‘父의 현전’이 젊은 세대의 삶에 야기한 변화나 ‘부친 살해’의 (신화적 의미가 아닌) 현실적 의의를 드러내는 문학적 성취를 이룬 문제작<sup>7</sup>이라 평가한다. 이 소설 속 젊은 딸들은 ‘나는 부재함으로 존재한다’는 성장서사 속 아버지의 합리화에 속지 않고, 실재하는 아버지가 자신들의 시야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 채로 그(가 상징하는 제도과 폭력)를 관찰하고 배반하며 고발한다<sup>8</sup>고 보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손유경의 연구에서 나아가 2020년대에 발표된 두 작품 정지아의 장편소설 『아버지의 해방일지』(창비, 2022)와 예소연의 단편소설 「그개와 혁명」(『문장웹진』, 2024. 1.)을 대상으로 새로운 부녀서사가 등장하고 있음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sup>9</sup> 딸의 성장서사에 주목한 기존의 연구, 아버지

4 최원식(1987), 「여성주의와 아버지 부재의 문학적 의미」, 『또하나의 문화』 3, p. 332.

5 나병철(2003), 「여성 성장소설과 아버지의 부재」, 『여성문학연구』 10, 한국여성문학학회, pp. 183-214.

6 손유경(2019), p. 363.

7 손유경(2019), p. 363.

8 손유경(2019), pp. 363-364.

9 물론 이 두 소설만으로 2020년대 부녀서사의 특징을 논하기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이 글은 소논문이므로 문제의식을 압축하여 정지아와 예소연의 두 작품에 집중해 보기로 한다.

대한 관찰과 배반을 통해 가부장 이데올로기의 신화로부터 벗어나고 있는 과정을 보여준 연구 그 다음에 위치하게 될 이 연구는, 장례식을 통해 아버지의 삶과 내면을 이해하고 삶의 주제로 우뚝 서는 딸의 모습에 주목할 것이다.

『아버지의 해방일지』(2022)는 알베르 카뮈의 『이방인』(1942)의 ‘영향에 대한 불안’<sup>10</sup>을 전략으로 하고 있는 작품이다. 먼저 이 작품이 어떤 측면에서 영향에 대한 불안 속에 놓여 있는지 검토한 후 이를 넘어서기 위해 작가가 취한 입장이 한국문학사의 새로운 부녀서사 등장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 부녀서사는 장례식이라는 『이방인』의 주요한 모티프를 그대로 활용하지만, 모자관계를 부녀관계로 바꾸어 여성 화자를 등장시킨다. 예소연의 「그 개와 혁명」은 『아버지의 해방일지』 이후에 발표되며, 선배 작가의 문제의식을 한편으로는 공유하며 더 나아간다. 기존의 다소 관념적인 부녀서사와 달리 두 소설은 한국 사회의 이데올로기와 그들 아버지의 삶이 갖는 관계를 초점으로 하고 있어 아버지의 시대 ‘이후의 삶’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보여주하고자 한다. 이 새로운 부녀서사를 설명하는데 알베르 카뮈의 『이방인』이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해럴드 블룸(Harold Bloom)의 저서 『영향에 대한 불안』을 토대로 이에 근거하여 작품들의 상호관계를 설명하고자 한 연구가 이미 발표된 바 있다.<sup>11</sup> 필자 역시 이들 연구를 활용하여 ‘영향에 대한 불안’을 설명하고자 한

10 해럴드 블룸(2012), 양석원 역, 『영향에 대한 불안』, 문학과지성사, p. 9.

이 논문에서 다루는 ‘영향의 불안’ 이론은 해럴드 블룸도 밝히고 있다시피 전통적인 영향 연구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즉 기원과 영향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배의 작품에 대한 위반이 더 중요하다. 영향의 불안을 설명하기 위해 텍스트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먼저 설명한 후 영향의 불안으로 인해 어떤 새로운 창조가 가능해졌는지를 밝히는 것이 이 논문이 규명하고자 하는 바이다. 2장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할 예정이다.

11 장성현(1996), 「윌셔리의 『휘페리온』: 수정된 『베르터』? - 해럴드 블룸의 영향 이론의 관점에서 본 『베르터』와 『휘페리온』」, 『괴테연구』 8, 한국괴테학회; 정지용(2015), 「발자크와 플로베르:문학적 영향에 대한 불안」, 『프랑스학연구』 72, 프랑스학회; 정원술(2023),

다. 다만, 이 글은 영향에 대한 불안만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므로 위의 기존 연구들처럼 본격적이라기보다 다소 소략하게 살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정지아와 예소연의 소설이 알베르 카뮈 『이방인』의 ‘영향에 대한 불안’을 넘어서 한국 사회의 주요한 한 장면을 어떻게 기록해 나가는지를 규명할 것이다. 이들 부녀서사를 통해 중요한 문제점이지만 표명되기 어려웠던 한국 사회의 부조리한 면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소설을 통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아버지의 자기합리화에 속지 않고 이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실재하는 아버지 그대로를 이해하고 자기 삶의 영역으로 받아들여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두 여성화자의 간곡한 목소리를 포착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문학사에 새로운 부녀서사가 등장하는 논의의 계기가 될 것이다.

## 2. 카뮈 『이방인』의 ‘영향에 대한 불안’

정지아의 다음 인터뷰를 먼저 보기로 하자.

(질문-인용자) “아버지가 죽었다”로 시작한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가 아닌데.

(답변-인용자) 그것도 객관화의 일환이다. 카뮈의 <이방인>이 ‘엄마가 죽었다’로 시작한다는 걸 까먹고 있었다. 그에 대해 묻는 사람도 있는데 그걸 생각한 건 아니다. 죽음으로 시작한 이유는 있다. 아버지 동료 몇 분이 살아 있긴 하지만 저물어가는 세대이고, 보내놓고 시작하면 이야기가 좀 더 편안하게 진행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구성적으로 고민이 많았다. 살아 있는 순간부터 쓸까 했는데 장례식 3일로 압축하는 게 낫겠다 싶었다.<sup>12</sup>

「서정주의 영향에 대한 김수영의 불안: 「내리는 눈발속에서는」(1955)과 세 편의 「눈」(1956, 1961, 1966)의 대조비평」, 『한국문예비평연구』 79,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12 임지영(2022), 「〈아버지의 해방일지〉, 빨치산 아버지를 온전히 이해하기까지」, 시

이 인터뷰의 질문은 소설 『아버지의 해방일지』의 첫 문장이 “아버지가 죽었다.”로 시작하는 이유에 대한 것이다. 정지아는 답변에서 “카뮈의 〈이방인〉이 ‘엄마가 죽었다’로 시작한다는 걸 까먹고 있었다. 그에 대해 묻는 사람도 있는데 그걸 생각한 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이 확인은 다음 몇 가지 소설 속 내용들을 확인하고 나면 다소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첫 번째는 ‘민중’을 중시한 아버지가 방물장수를 하룻밤 재워준 사건에 대해 서술한 내용에서 드러난다.

열일곱의 나는, 방물장수 하룻밤 재우는 일에 민중을 끌어들이는 아버지 나 그 말에 냉큼 꼬리를 내리는, 꼬리를 내리다 못해 죄의식에 얼굴을 붉히는 어머니나, 그때 읽고 있던 카뮈의 『이방인』보다 더 낮설었다.<sup>13</sup>

혁명가였던 아버지의 죽음과, 아버지의 행위나 삶의 방식이 “유머일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시작한 첫 부분을 이어받는 부분인데, 작가는 왜 굳이 여기서 카뮈의 『이방인』을 언급한 것일까? 물론 카뮈의 『이방인』이 세계문학사에 던진 파문만큼, 일상에서 민중 운운하고 죄의식을 느끼는 빨치산 부모의 낯선 모습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빨치산 이력을 지닌 부모가 흔치도 않거니와 그들의 이상한 대화야말로 블랙유머이며 소설이 씌어지는 방식이 이러한 것이라는 예단이기도 하다.

그다음은 맥락과 상관없이 갑자기 묘사된 “해는 더 높아지고 별은 더 따가워졌다.”<sup>14</sup>라는 문장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이방인』에 자주 등장한 태양에 대한 묘사<sup>15</sup>가 연상되는 장면이다. 이 사소한 묘사는 사실 『이방인』

사IN 웹페이지, 시사IN, 2022. 11. 23.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979>

13 정지아(2022), 『아버지의 해방일지』, 창비, p. 13.

14 정지아(2022), p. 134.

15 카뮈의 『이방인』(김화영 역, 민음사, 2019) 속 다음 문장이 이에 해당한다.

에 대한 작가 정지아의 오마주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다음 또 하나는 “부조리한 세계의 대안이었던 아버지의 세계”<sup>16</sup>라고 화자가 말하고 있는 부분에 『이방인』의 주제인 ‘부조리’가 직접 언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방인』에서 ‘엄마’의 장례식이 중요한 내용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장례식 과정을 소설화한 것 이외에도 위와 같은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이방인』의 간결하고도 정확한 문체,<sup>17</sup> 혹은 화자의 해석을 덧붙여 소설을 쓰고 있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방인』의 영향은 작가가 인터뷰에서 확인한 것과 반대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작가의 ‘영향에 대한 불안’의 측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작가는 굳이 왜 이런 것을 소설 속에 남겨 놓았을까?

해럴드 블룸은 ‘영향에 대한 불안’의 의미를 전통적인 원전 연구와 비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sup>18</sup> 즉 원전 연구는 작품들의 문체 등의 유사성을 통해서 작품의 기원과 영향 관계를 파악하려는 것이지만, 블룸의 관심은 유사성이 아니라 왜곡이고 차이이며 오역이다. 중요한 것은 블룸 이전의 전통적인 영향 연구가 근본적으로 후배 작가가 선배 작가를 모방하는 것을 이상적인 것으로 여기고 문학 전통의 연속성을 당연한 것으로 가정하는 문학사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반면, 블룸에게 중요한 것은 문학 전통의 연속성이 아니라 불연속성이며, 선배 작가의 모방이 아니라 선

---

“나는 태양이 그렇게 빨리 하늘로 솟아오르는 것을 보고 놀랐다.”(p. 27), “태양은 거의 수직으로 모래 위에 내리쬐혔고 바다에 반사되는 그 강렬한 빛은 건디기 어려울 정도였다.”(p. 70), “이제 태양은 짙어누르는 듯했다.”(p. 73), “그것은 내가 엄마의 장례를 치르던 그날과 똑같은 태양이었고, 그날처럼 특히 머리가 아팠고, 이마의 모든 핏줄들이 한꺼번에 다 피부 밑에서 펄떡거렸다. 불로 지지는 것 같은 그 뜨거움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p. 77)

16 정지아(2022), p. 264.

17 로제 키요(2019), 『『이방인』을 다시 읽는다-『이방인』 50주년 기념 논문』, 알베르 카뮈, 『이방인』, 김화영 역, 민음사, 2019, p. 176.

18 이하 내용은 블룸의 다음 서지사항 참조. 해럴드 블룸(2012), pp. 261-262.

배 작가의 모방을 넘어서 능가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블룸에게 전통은 선배의 “가르침에 대한 위반”이라는 것이다.

1973년 해럴드 블룸은 『영향에 대한 불안』(*The Anxiety of Influence*)을 출판한 후, 1997년 ‘오염의 괴로움’이라는 긴 서문을 추가하여 재출판을 하면서 “영향의 과정에 대한 관점을 명확히 제시하고 확정하”<sup>19</sup>고 싶다는 바람을 밝힌다. “어느 정도 문학적 감수성을 지닌 독자라면 누구든 영향에 대한 불안이 선구자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이야기, 소설, 희곡, 시 혹은 에세이에서 성취되는 불안이라는 점을 알 것”<sup>20</sup>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블룸이 이 “‘불안’이라는 개념을 프로이트에게서 빌려와 자신의 이론에 창조적으로 적용”<sup>21</sup>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보면 이는 ‘텍스트의 무의식’과 연결되는 측면이 있다.

다시 이 장의 첫 부분에 인용한 인터뷰 내용으로 돌아가보자. 정지아가 “카뮈의 <이방인>이 ‘엄마가 죽었다’로 시작한다는 걸 까먹고 있었다. 그에 대해 묻는 사람도 있는데 그걸 생각한 건 아니다.”라고 한 부분은 다음과 같이 설명해볼 수 있다. 작가는 『이방인』을 당연히 읽었을 테고, 창작 과정의 무의식 속에 『이방인』이 있었을 것이다. 작가는 무의식적으로 ‘영향에 대한 불안’의 흔적을 작품 속에 남겨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정지아에게는 인터뷰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아버지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소설의 중요한 출발점이었고, 아버지의 삶에 대한 반추가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으로부터의 영향을 의식적으로 생각할 겨를은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뷰에서의 이토록 강한 부인은 마치 플로베르가 발자크에 대해 보여주는 불안한 침묵과 회피<sup>22</sup>와 유사해 보여 더욱 흥미롭

19 해럴드 블룸(2012), p. 9.

20 해럴드 블룸(2012), p. 26.

21 해럴드 블룸(2012), p. 263.

22 정지용(2015), 「발자크와 플로베르: 문학적 영향에 대한 불안」, 『프랑스학연구』 72, 프랑

다. 플로베르의 『마담 보바리』가 샤를르의 전학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미 발자크의 『루이 랑베르』에서 먼저 방동의 기숙학교에 전학을 오는 등 동일한 상황 설정이 이루어져 있었다. 또 플로베르가 발자크 소설에 있는 문장과 똑같은 문장을 소설에 쓰고 있다<sup>23</sup>는 점은 마치 정지아가 『이방인』의 영향을 받고도 회피하고자 하는 무의식적 현상과 궤를 같이한다. 그런 한편, 정지아의 아버지가 실제로 사망한 후에 이 소설이 씌어졌기 때문에 아버지의 죽음과 장례식장을 그린 것 역시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굳이 소설 속에서 『이방인』을 언급하고 태양에 대한 묘사를 하며, ‘부조리’라는 주제를 소설 속에 노출시키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텍스트의 무의식’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를 통해 정지아는 무엇인가 드러내고 발언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여기서 “어느 정도까지는 선배 작가의 작품을 따라가지만 그다음부터는 그가 추구하는 새로운 방향으로 궤도를 수정하게 된다”<sup>24</sup>는 블룸의 말에 주의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 플로베르가 발자크에 대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정지아가 카뮈의 『이방인』에 대해 보인 태도도 문학적 영향으로 인한 불안의 표출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특정한 순간에 이르면 플로베르나 정지아는 그들이 추구하는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여 자신만의 문학세계를 추구해 간 것이다. 특히 정지아에게는 ‘빨치산의 딸’로서의 여성 화자라는 한국 사회의 질곡을 안고 있는 중요한 테마가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과 차별화되는 소설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다.

정지아는 카뮈의 『이방인』의 영향에 대한 불안을 활용하여 이데올로기로 인한 한국사회의 부조리를 드러내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여전히 분단국가인 한국에서 빨치산이었던 부모와 빨치산의 딸 서사는 제대로 그려지기 어려웠던 현실 때문에 이러한 방식의 소설이 등장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스학회, 2015, p. 188.

23 정지용(2015), p. 191.

24 정지용(2015), p. 194.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지아의 『아버지의 해방일지』는 카뮈의 『이방인』의 영향하에 놓여 있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거기서 풀려나 정지아만의 새로운 세계를 지향해 나간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플로베르가 발자크의 영향을 극복하고 독창적인 문학적 영역을 차지<sup>25</sup>했듯이, 정지아는 카뮈 『이방인』의 주제 부조리를 활용하여 한국사회의 ‘빨갱이’를 바라보는 부조리한 눈과 그들과 연루된 사람들의 부조리한 삶에 대해 발언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 개와 혁명』과 『이방인』과의 관계는 다소 느슨할 수 있지만, 개가 등장한다는 점에 주목해볼 수 있다. 『이방인』 1부에 뫼르소와 같은 층에 사는 살라마노 영감의 개 이야기가 나온다. “그 개와 단둘이 조그만 방에서 오랫동안 지내다 보니 살라마노 영감은 마침내 개를 닮고 말았다”<sup>26</sup>는 언급, 살라마노는 자신의 동반자이지만 이 개에게 육설을 퍼붓기도 한다는 서술, 개를 잃어버린 살라마노가 “나한테서 개를 빼앗아가지는 않겠지요, 네, 뫼르소 씨?”<sup>27</sup>라며 불안을 호소하자 뫼르소가 동물 보호소의 역할에 대해 일러 주는 점이 주의를 요한다. “그러다가 벽을 통해서 조그맣게 들려오는 기이한 소리에 나는 그가 울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왜 엄마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다.”<sup>28</sup>로부터 살라마노 영감이 개를 잃어서 슬퍼하는 내용은 사실은 엄마의 죽음에 슬퍼하고 있는 뫼르소 내면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그 개와 혁명』에는 수민의 아버지 태수 씨의 개 ‘유자’가 나온다. 태수 씨는 유기견 사이트에서 입양해 온 진돗개 유자를 정성스레 키웠으며 유자 역시 태수 씨를 졸졸 쫓아다녔을 정도로 둘은 매우 친밀한 사이이다. 앞서 『이방인』과의 관계가 다소 느슨하다고 한 이유는 굳이 『이방인』의 영향에 대한 불안을 얘기하지 않고도 ‘개’가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

25 정지용(2015), p. 194.

26 알베르 카뮈(2019), p. 40.

27 알베르 카뮈(2019), p. 55.

28 알베르 카뮈(2019), p. 55.

른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방인』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은 장례식과 개라는 매개항 때문이다. 다음은 「그 개와 혁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나도 태수 씨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태수 씨는 내 말을 듣자마자 그러나, 했다. 그러더니 내가 어떤 사람인데, 되물었다.

“모든 일에 훼방을 놓고야 마는 사람.”<sup>29</sup>

수민은 아빠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다고 고백하며 아빠를 “모든 일에 훼방을 놓고야 마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태수 씨가 죽기 전에 수민에게 유자를 장례식장에 데려오라는 당부를 하며 “나는 꼭 훼방 놓고야 마는 사람이잖아.”라고 말하는 대목은 개 유자를 매개로 태수 씨의 내면이 드러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살라마노의 개와의 관계가 결국은 엄마의 죽음에 대해 피르소가 느끼는 슬픈 내면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 더욱 그렇다. 이 소설의 마지막은 장례식장이 난장판이 되는 것으로 그려지는데, 여기에 개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개를 장례식장에 데려와 달라는 것은 아버지의 바람이었고 이를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다.

두 소설 모두 장례식을 통해 아버지의 삶에 대한 애도를 완성하게 되는데, 카뮈 『이방인』의 다음 구절이 오버랩된다.

참으로 오래간만에 처음으로 나는 엄마를 생각했다. 엄마가 왜 한 생애가 다 끝나갈 때 ‘약혼자’를 만들어 가졌는지, 왜 다시 시작해 보는 놀음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거기, 못 생명들이 꺼져 가는 그 양로원 근처 거기에서도, 저녁은 우수가 깃든 휴식 시간 같았다. 그토록 죽음이 가까운 시간에 그곳에서 엄마는 마침내 해방되어 모든 것을 다시 살아 볼 준

— www.kci.go.kr

29 예소연(2024), 「그 개와 혁명」, 『사랑과 결합』, 문학동네, p. 238.

비가 되었다고 느꼈던 것 같다.<sup>30</sup>

피르소는 처형을 앞두고 “나와는 영원히 관계가 없게 될 한 세계로의 출발”<sup>31</sup>을 느끼면서 문득 엄마 생각을 한 것이다. 『이방인』의 주제인 부조리도 중요하지만, 위 내용이 하필 소설이 끝나가려는 즈음에 서술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이 모든 과정은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해온 피르소가 다시 엄마의 생명과 삶을 이해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엄마가 마침내 해방되어 모든 것을 다시 살아볼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을 때 죽음을 맞이하기는 했지만, 비로소 이렇게 이해하게 되자 피르소 자신도 다시 살아볼 수 있을 것 같은 다소 아이러니한 생각을 하며 처형날을 기다리는 것으로 이 소설은 끝난다. 두 소설이 아버지의 삶을 직시하며 이해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점은 『이방인』에서 피르소가 죽음 직전 해방감을 느끼며 ‘엄마’를 이해하게 되는 짧은 장면이 확대된 듯한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정지아는 장례식을 통해 애도를 완성하고, 예소연은 투병하는 아버지에 대해 깊은 사랑을 깨닫는다.

소설에서 장례식이 매우 중요한 구조이며, 딸이 화자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 부녀관계 형상화가 그 중점에 있다는 것, 유머로 일관되는 문체 등으로 미루어 보아, 이 「그 개와 혁명」은 『아버지의 해방일지』 이후에 발표되어 더 큰 의미를 갖는다.<sup>32</sup> 두 소설에서 일관되게 이루어지는 유머는 『이방인』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해방일지』에서 개발된 것이기도 하다는 점 역시 주목되어야 한다. 그런데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세대가 다르다. 『아버지의 해방일지』의 화자 아리는 작가 정지아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

30 알베르 카뮈(2019), p. 147.

31 알베르 카뮈(2019), p. 147.

32 이 글은 『아버지의 해방일지』와 「그 개와 혁명」이라는 작품을 폄하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 오히려 이들을 카뮈의 『이방인』과 함께 읽음으로써 두 작품의 의미를 새로이 찾을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으므로 80년대 학번 정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개와 혁명」에 등장하는 85학번 아버지는 『아버지의 해방일지』의 화자와 비슷한 연배로 설정되어 있다. 민주 85인 아버지와 페미니스트 딸이라는 설정은 그래서 더욱 흥미롭다. 그러니까 정지아와 예소연은 소설을 통해서 한 세대를 격해 있는 것이다. 앞에 소개한 정지아 인터뷰 내용 중 한 답변에서 정지아는 “페미니스트로 추측되는 20대 독자들이 자신의 아버지와 평생 반목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도 했다. 그런 반응이 뿌듯했다.”<sup>33</sup>고 말했는데, 이는 마치 그다음에 발표된 예소연의 「그 개와 혁명」에 대한 예견 같기도 하다.

### 3. 여성 화자의 목소리와 애도의 과정

그렇다면 대체 이 두 소설의 아버지는 화자인 딸에 의해 어떻게 묘사되는가? 장편소설과 단편소설이라는 장르 차이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으므로 『아버지의 해방일지』는 조금 더 자세하게, 「그 개와 혁명」은 비교적 간략하게 부녀관계 형상화 방법의 차이에 대해 논해보기로 하겠다.<sup>34</sup> 먼저 『아버지의 해방일지』부터 보기로 하자.

이 소설은 화자 나(아리)가 아버지의 장례식 3일장을 치르면서 조문객을 맞이하는 과정으로 그려져 있으며 이들 조문객과의 과거 에피소드가 주된 구성으로 나온다. 그 에피소드 사이 주로 화자가 어렸을 때 집 구조 때문에 부모가 주고받는 이야기가 다 들려서 기억하고 있는 내용들, 아버지가

33 임지영(2022).

34 정지아의 『아버지의 해방일지』는 장편소설이고, 예소연의 「그 개와 혁명」은 단편소설이라는 점, 작품 발표 순서가 카뮈의 『이방인』, 정지아의 『아버지의 해방일지』, 예소연의 「그 개와 혁명」이기 때문에 해석이 정지아의 『아버지의 해방일지』에 더 치중되는 것은 불가피한 점이 있음을 밝혀 둔다. 카뮈의 『이방인』과 정지아의 『아버지의 해방일지』가 설명되지 않으면 예소연의 작품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해준 이야기, 그리고 주변 인물들이 해준 이야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버지의 해방일지』의 아버지는 작가 정지아 아버지의 모습과 거의 유사하다. 물론 허구화 과정에서 실제 인물이 그대로 재현되었을 리는 없지만, 빨치산이었던 정운창<sup>35</sup>이 소설 속 고상욱의 모델인 것이다. 그 딸이자 화자는 고아리이다.

스스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정지아 작가의 이름은 지리산의 ‘지’와 백아산의 ‘아’에서 따온 것으로 역사성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이미 이름에서 부여받았다.<sup>36</sup> 이 소설의 화자인 아리는 빨치산의 딸이자, 386세대라 불린 학생운동권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리는 아버지가 활동했던 백아산의 아, 어머니가 활동한 지리산의 리를 딴 이름”<sup>37</sup>이라고 소설 속에 소개되어 있다. 이름 자체에 벌써 빨치산의 딸이라는 천형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딸이 화자가 되어 ‘유머’를 내장한 문체로 빨치산이었던 부모를 조롱하기도 한다. 유머라는 형식을 빌지 않았다면 아마도 이 소설이 많은 독자들에게 공감을 자아내<sup>38</sup>기는 어려웠을지도 모른다.

조롱은 첫 문장부터 시작된다. 아버지의 죽음을 두고 “아버지가 죽었다.”라니, 그리고 뒤이어 오는 문장에서 “전봇대에 머리를 박고. 평생을 정색하고 살아온 아버지가 전봇대에 머리를 박고 진지 일색의 삶을 마감한 것이다.”라고 화자는 말하고 있다. “아버지의 행위나 삶의 방식이 유머일 수 밖에 없는 것이 정확하겠다”<sup>39</sup>고도 서술되어 있다. 아버지의 행위나 삶의

35 이에 대해서는 정지아(1990), 『빨치산의 딸』 상·하, 실천문학사 참조.

36 임지영(2022).

37 정지아(2022), p. 29.

38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글 참조. 한기호(2023), 『『아버지의 해방일지』 열풍』, 『기획회의』 597,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아버지의 해방일지』는 2022년 9월에 출간되고 나서 곧바로 화제작이 되었다. 책이 나오고 나서 한 달도 안 되어서 주요 서점의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올해 들어서도 꾸준히 독자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판매량이 30만부를 넘어섰다.”

39 정지아(2022), p. 7.

방식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고상옥이 빨치산이었다는 사실과, 이십 년 가까운 감옥살이를 마친 뒤 서울이 아니라 고향인 반내골에 터를 잡았다는 사실이다. 고상옥은 화자 아리의 눈에 일관되게 사회주의자이며 유물론자이다. 반면 화자는 “뺏속까지 사회주의자인 아버지의 피를 받고 그런 아버지의 교육을 받았지만 나는 어디까지나 현실주의자다. 남들에게는 빼도 박도 못하는 빨치산의 딸이겠지만.”<sup>40</sup>이라고 자조한다. 화자는 사회주의보다 인간의 본성이 더 강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의 기본은 뭐여?” “그야 유물론이제라.”라며 마치 장단 맞추듯이 대화를 주고받으며 “민중이 마늘 반 접 따위 흠치지 않고도 배꼽지 않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sup>41</sup>던 부모의 모습이 장례식이 그려지는 째째이 묘사된다.

화자는 “사회주의자 아닌 아버지를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를 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sup>42</sup>라고 고백하고 있다. 아버지를 아는 것이 애도의 한 방식이라는 것을, 이 소설을 쓰는 일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이 먼저 제시되어 있다.

아버지는 사시였다. 그래서 아버지가 대체 무엇을 보고 있는지 가늠하기 어려웠다. 무엇도 보고 있지 않은 듯도 했고, 이면을 꿰 어보는 듯도 했다. 대부분 나처럼 사시인 아버지의 응시를 불편해했다. 사시가 된 것은 물론 아버지의 잘못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1948년 초, 5.10 단선반대 유인물을 살포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아버지 성기에 전선을 꽂고 전기고문을 했다. 전기고문은 사시 말고도 또다른 후유증을 남겼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다.<sup>43</sup>

40 정지아(2022), p. 10.

41 정지아(2022), p. 14.

42 정지아(2022), pp. 24-25.

43 정지아(2022), p. 26.

아버지는 1948년 초 5.10 남한 단독선거 실시에 반대하는 유인물을 살포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때 전기고문으로 아버지는 사시가 되었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던 것이다. 물론 그 후 한의사의 약처방으로 화자가 태어났지만 아버지의 몸에 대해 화자는 적나라하게 그리고 있다. 사시가 된 것이 아버지의 잘못이 아니듯 빨치산의 딸이 된 것이 화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도 은연중에 확인할 수 있다.

아버지의 장례식에는 사회주의자였던 황길수의 아들 황사장,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미리 준비하고 아버지를 삼촌으로 모셨다는 민노당원 박동식, 빨치산이었던 형을 둔 박한우 선생, 구례 읍내 고층 아파트 관리인으로 일하다가 항상 인간을 신뢰했던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딸인 화자에게까지 빚이 대물림되었던 사실, 아버지가 생애 마지막까지 출근하며 놀았던 삼오당, 다섯 살 때 아버지가 하동댁 궁둥이를 두들긴 사건을 기억하는 화자, 빨갱이 작은아버지를 둔 덕분에 육사에 합격하고도 신원조회에 걸려 입학하지 못한 큰집 길수오빠의 삶 등이 소개된다. 연좌제가 풀리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말단 공무원이 된 오빠는 지금 위암 말기 판정을 받은 상태다. “빨갱이의 딸인 나는 오빠를 생각할 때마다 죄를 지은 느낌이었다. 빨갱이의 딸인 나보다 빨갱이의 조카인 오빠가 견뎌야 했을 인생이 더 억울할 것 같아서였다.”<sup>44</sup> 이렇게 반내골 아버지 주변의 여러 삶들이 화자의 기억과 함께 조문객을 통해 드러난다.

흥미로운 것은 아버지로 인해 삶이 송두리째 뺏힌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도움을 준 사람들의 이야기도 함께 제시된다. 아버지는 문제를 해결해준 후 속으면서도 그렇게 상처받지 않은 것으로 그려진다. 오죽하면 그랬겠느냐 하고 이해하며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사회의 구조적 모순 탓이고, 그래서 더욱 혁명이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이었다.”<sup>45</sup> 아버지

44 정지아(2022), p. 81.

45 정지아(2022), p. 102.

는 돌아가셨지만 “어떤 순간의 아버지는 누군가의 시간 속에 각인되어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생생하게 살아날 것”이라 생각하자, 화자는 “나의 시간 속에 존재할 듯한 순간의 아버지에 대해 그리움”<sup>46</sup>을 느끼게 된다.

집안에 일만 생기면 해결사로 나섰던 아버지의 여러 가지 에피소드와 함께 “저렇게 경우 바르고 똑똑한 양반이 왜 하필 ‘빨갱이’가 되었느냐고 집안 사람들은 한탄을 하였다.” “하기사 그 시절에 똑똑하다 싶으면 죄 빨갱이였으께.” “똑똑헌 사램만 빨갱이였가니. 게나 고동이나 죄 빨갱이였제.”라는 말 뒤에 화자는 “책에서 배운 바 없는 해방 직후의 세상이 그랬다는 것을 나는 귀동냥으로 배웠다”<sup>47</sup>고 적고 있다. 사실 집안 일 가운데 가장 엄청난 사건은 1948년 가을 아버지가 끌고 왔던 14연대가 일주일 남짓 반내골에 머물다 간 이후에 일어났다. 며칠 후 군인들이 고상욱 본 사람 손을 들라고 한 말에 아홉 살이었던 작은아버지는 형이 자랑스러워서 사실을 말해 버렸던 것이다. 할아버지는 한민당 지지자였지만, 구레 경찰이 아니라 외지 군인들이었으므로 이를 알 리 없었고 할아버지는 죽임을 당했다. 작은아버지는 그날부터 소주에 취한 채 평생을 살고 있다.

그다음 문상객과 그를 둘러싼 일 중 가장 상징적인 것은 베트남전쟁 상이용사 노인의 등장이다.<sup>48</sup> 아버지의 문상객 중에는 사회주의자만 있는 게 아니다. 상이용사 노인의 형과 아버지는 어릴 적 친구다. 상이용사는 장례식에 몇 번 왔다갔다 하며 사진 한 장을 가져온다. 아직 사회주의를 모를 때의 소년 둘이 찍혀 있는 사진이다. 형은 죽었고 고상욱은 살아 있어 늘 고상욱을 미워하며 화를 내다가 이제 그 딸인 화자에게 옛날 사진을 주며 “인자 우리 성 얼굴도 잊어볼라고.”<sup>49</sup>라고 돌아서는 상이용사 노인의 모습을 통해, 화자의 아버지 고상욱의 장례식에서 비로소 상이용사 노인의 형

46 정지아(2022), p. 110.

47 정지아(2022), p. 117.

48 정지아(2022), p. 137.

49 정지아(2022), p. 196.

에 대한 애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애도의 과정은 사실 화자 아리가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며 도달하게 될 과정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단지 작은 에피소드에 불과한 것만은 아니다.

화자에게는 네 살 때 아버지의 알몸을 보았던 기억이 있다. 자신과 다른 아버지의 하체를 보며 응시하자 아버지가 후닥닥 옷을 여뒀던 기억이다. 이 기억은 아버지의 죽음을 두고 소설 속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인생 최초의 깊은 슬픔, 무엇으로도 메울 수 없는 결여를 느꼈다”, “아버지의 알몸을 본 섬진강에서 나는 이미 아버지와 분리되었다”.<sup>50</sup> 아버지와 자신을 동일시해오던 유년 시절의 화자가 나 자신으로 서야 함을 깨닫는 단초가 되는 사건이었던 것이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그 기억이 소환되는 것 역시 큰 의미가 있다.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 나에게는 없다!

다음 날부터 나는 아버지처럼 서서 오줌을 똥다. 그런다고 나에게 없는 것이 생기지는 않았다. 번번이 팬티와 바지를 적셔 어머니에게 지청구를 들었을 뿐이다. 그 기억이 안개에 잠긴 섬진강처럼 흐릿하게 남아 있었고, 아버지의 시신을 보자 또렷하게 되살아났다. 네 살 때의 아버지는 나에게 나와 같은 존재였다. 일심동체. 아버지의 알몸을 본 섬진강에서 나는 이미 아버지와 분리되었다. 그러니까 내게서 아버지를 빼앗아간 것은 이데올로기나 국가만이 아니었던 것이다. 아니다. 아버지와 다름을 깨닫고 아버지를 닳고자 서서 오줌을 눌 만큼 아버지는 나의 전부였다. 그 아버지를 이데올로기가, 국가가 빼앗아간 것이다.<sup>51</sup>

그러니까 아버지의 죽은 몸을 직시하게 되면서 네 살 때의 그 충격적

50 정지아(2022), p. 200.

51 정지아(2022), pp. 200-201.

기억이 또렷하게 생각난 것이다. 나는 이미 네 살에 아버지와 분리되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게 된다. 화자는 줄곧 나의 전부였던 아버지를 이데올로기와 국가가 빼앗아간 것이라고만 생각해왔던 것이다. 아버지의 화자에 대한 사랑은 끝이 없었는데, 고3 여름방학 때 입시에도 아랑곳없이 늘어서게 자고 있는 딸을 발견하고 낮을 휘두르며 “원제꺼정 이리 허투루 살라냐!”<sup>52</sup>고 호통을 친 아버지에게 화자는 “아버지가 해야 했던 것은 빨치산의 딸로 살게 해서 미안하다는 진정한 사과였다.”<sup>53</sup>고 쓰고 있다. 화자는 “반내골만 아니라면, 빨치산의 딸만 아니라면, 어디 가서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다.”<sup>54</sup> “빨치산의 딸이 아닌 어떤 인생이라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다.”<sup>55</sup>는 생각을 하며 반내골을 떠나려던 길에서 작은아버지를 단둘이 대면하게 된 적이 있다. “저 질이 암만 가도 끝나들 안 해야.”라고 하는 작은아버지를 보며 “작은아버지도 나처럼 이 길을 따라 떠나고 싶었”<sup>56</sup>을 거라는, 빨치산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평생 지고 살았을 작은아버지에 대해 공감하게 된다.

그래도 형이라고 가족묘를 제안하는 작은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없지만 백운산에 모셔야 할 것 같다고 하자 작은아버지가 버럭 소리를 지른다.

시집 안 간 딸자식에게 언니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쫓혔다. 비수가 꽃힐 때 알았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아버지 자식이라는 것을. 아버지가 가족을 등지고 사회주의에 몸담았을 때,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혈육을 뿌리치고 빨치산이 되었을 때, 이런 마음이겠구나. 첫걸음은 무거웠겠고, 산이 깊어

52 정지아(2022), p. 204.

53 정지아(2022), p. 205.

54 정지아(2022), p. 206.

55 정지아(2022), p. 207.

56 정지아(2022), p. 209.

질수록 걸음이 가벼웠겠구나. 아버지는 진짜 냉정한 합리주의자구나. 나는 처음으로 나와 같은 걸을 가진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sup>57</sup>

위 인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큰언니는 화자의 선택을 두고 시집 안간 딸자식의 깔끔한 성질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화자는 별안간 빨치산이 된 아버지도 자신과 비슷했을 것이라 생각하며 아버지를 닮은 스스로를 확인한다.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빨치산의 딸이라는 굴레가 너무 무거웠다고 변명조차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장례식장에서 처음으로 소리 내어 울며, 화자는 “아버지를 위한 울음이 아니라 나를 위한 울음”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며 아버지의 삶에 대해 이해하고, 나 자신을 찾아가는 이야기로 애도가 이루어지는 과정인 것이다. 장례식날 새벽, 드디어 화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이른다.

아빠, 나는 들을 리 없는, 유물론자답게 마음 한줌 남기지 않고 사라져, 그저 빛의 장난에 불과한 영정을 향해 소리 내 불렀다. 당연히 대답도 어떤 파장 따위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도 하지. 영정 속 아버지가, 이틀 내 봤던, 아까도 봤던 영정 속 아버지가 진짜 달리 그림던 어떤 날들처럼 친밀하게 느껴졌다. 죽음으로 비로소 아버지는 빨치산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로, 친밀했던 어린 날의 아버지로 부활한 듯했다. 죽음은 그러니까, 끝은 아니구나, 나는 생각했다. 삶은 죽음을 통해 누군가의 기억 속에 부활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화해나 용서 또한 가능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펼출-인용자)

밤은 깊어가고 정신은 더욱 맑아졌다.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흔들림 없이 고요했다. 나는 냉정한 합리주의자 아버지의 딸이니까. 이제 곧 아

버지 이승에서의 마지막 날이 밝을 테니까.<sup>58</sup>

화자는 살아 있을 때의 아버지가 자신을 빨치산의 딸로 살게 했다고 원망만 했으나 장례식장에서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며 ‘친밀한 아버지’가 부활하는 것을 느낀다. 나아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그 삶이 부활하는 것이므로 화해나 용서도 가능할지 모른다는 깨달음에 도달한다. 소설의 말미에 등장하는 베트남 여자아이와 그 엄마의 새벽 조문과, 백운산 한재로 장례식 행렬이 가던 중 서울대 연습림 입구 관리사무소 통과가 어려워 잠시 머문 사이 화자는 아버지에 대해 다시 생각한다. 아버지의 평생을 지배했지만 아버지가 빨치산으로 산 기간은 48년 겨울부터 52년 봄까지 고작 4년이었던 것이다.

고작 사년이 아버지의 평생을 뒤흔 건 아버지의 신념이 대단해서라기보다 남한이 사회주의를 금기하고 한번 사회주의자였던 사람은 다시는 세상으로 복귀할 수 없도록 막았기 때문이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의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그래서 아버지는 고작 사년의 세월에 박제된 채 살았던 것이다. 아버지는 더 오랜 세월을 구레에서 구레 사람으로, 구레 사람의 이웃으로 살았다. 친인척이 구레에 있고, 칠십년지기 친구들이 구레에 있다. 아버지의 뿌리는 산이 아니다. 아버지의 신념은 그 뿌리에서 뻗어나간 기둥이었을 뿐이다. 기둥이 잘려도 나무는 산다. 다른 가지가 뻗어 나와 새순이 돋고 새 기둥이 된다.<sup>59</sup>(밑줄-인용자)

위 인용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 현대사의 전개 속에서 빨치산이었던 사람의 ‘이후의 삶’이 그려진 적은 이 소설이 처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

58 정지아(2022), pp. 231-232.

59 정지아(2022), pp. 252-253.

다. 이 소설은 빨치산이었던 사람의 평범한 일상을 그려낸 것이라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작가는 여기서 남한 사회가 그동안 사회주의를 금기시하고 한 번 사회주의자였던 사람을 다시는 세상으로 복귀할 수 없도록 막고 있는 한국 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비판으로 나아가고 있다. 빨치산이었던 4년의 세월에 박제된 채 살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이후의 삶’을 이제야 깨닫게 된 것이다. 이는 아버지의 삶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이데올로기를 둘러싼 문제점에 대한 간접적인 발언으로도 볼 수 있다.

드디어 화자는 화해와 용서를 거쳐 아버지에게 대해 완벽히 이해한 후, 아버지의 내면을 다음과 같이 추정해본다. “내가 아는 아버지는 우리가 싸워야 할 곳은 산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불빛 아래 옹기종기 모여 밥 먹고 공부하고 사랑하고 싸우기도 하는 저세상이라고. 아버지라면 분명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sup>60</sup> 여기에 생각이 이르자 화자는 아버지의 유골을 들고 세상으로 향한다. 여순사건의 실체를 파헤치는 일을 하다가 아버지의 아들 같이 친해진 학수가 쫓아와서 함께 구례 중앙교에서 반내골 가는 길, 반내골에서 노인정, 오거리, 오거리 슈퍼 앞에서 노란머리 여자아이도 합류하여 오거리 슈퍼 앞에도 유골을 조금 뿌린 후 셋이 되어 “셋이 항문에 담배를 피웠다.” “어쩐지 아버지와 여기, 함께하는 느낌이었다. 살아있는 우리와 항문에.”<sup>61</sup> 학수와 노란머리 여자아이로 대표되지만, 실제로는 이데올로기적 어려움을 겪고 사는 한국사회의 수많은 사람들, 한국사회에서 마이너리티로 살고 있는 외국인 이주민과의 연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삼오시계방으로 차를 타고 가며, 화자는 “이데올로기와 상관없이 언제나 아버지 옆에 있었던 사람들”을 생각하고 “부조리한 세계의 대안이었던 아버지의 세계”<sup>62</sup>에 따듯한 시선을 보낸다. 한국사회는 빨치산의 이후의 삶을 가능하지 않게 했지만, 반내골이라는 장소에서는 조금 허용되었던 아버지의

60 정지아(2022), p. 255.

61 정지아(2022), p. 263.

62 정지아(2022), p. 264.

세계가 화자에게 더 특별한 이유이다. 소설 마지막에는 노란머리 아이의 입을 통해 화자 아버지 이야기가 전해진다.

“할배가 그랬는디, 언니가 여개서 썩을 냈담서? 할배가 아줌마 궁텡이 두들쨌다고?”

“그때게 할배 댐이 요상허드래. 아버지라는 거이 이런 건잡다. 산에 있을 적보담 더 무섭드래. 경찰보담 군인보담 미군보담 더 무섭드래.”<sup>63</sup>

사실 아버지는 빨치산 활동 때 경찰, 군인, 미군에 대해 느꼈던 것보다 자식의 말이나 감정이 더 무서웠던 것이다. 빨치산으로서의 삶보다 딸이 아버지의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였다는 것을 아버지 말년의 어린 친구 노란머리 여자아이를 통해 확인하게 된 것이다. 이제 아버지의 죽음으로, 장례식을 치르는 과정을 통해 아버지에 대한 완전한 이해에 이르러 “나의 아버지, 빨치산이 아닌, 빨갱이도 아닌, 나의 아버지.”로 소설은 끝난다. 이 마지막 문장은 오래 여운을 남기는데 예소연의 「그 개와 혁명」으로도 이어져 있어 흥미롭다.

예소연의 「그 개와 혁명」 속 아버지는 어떠한가. 「그 개와 혁명」 역시 수민이라는 딸 화자가 ‘태수 씨’로 불리는 아버지 58세 형주의 장례식을 그리고 있다. 태수 씨는 원래 이름이 형주였으나 암 진단을 받은 후 고모가 작명소에서 오래 살 이름이라고 지어 왔고 이후 가족들 모두 ‘태수 씨’로 부르게 된 사연이 있다. 사실 태수 씨라고 할 때 이미 화자와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기도 하다. 『아버지의 해방일지』의 아버지가 어린 딸이 화내는 것을 보고 ‘아버지’로 돌아가는 것이 빨치산 활동 때보다 더 무섭고 군인이나 경찰보다 더 무섭더라고 쓴 대목은 「그 개와 혁명」에서는 더 발전한다. 다음 대목이 그러하다.

— [www.kci.go.kr](http://www.kci.go.kr)

팔당에 가서 그러더라, 네 엄마가 널 임신했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만해야 될 것 같다고. 성식이 형이 그렇게 말했다. 무엇어요? 아니지. 개는 듣자마자 말렸지. 개는 뺏속까지 PD였어. 아무래도 수령님을 모시는 건 자기 길이 아닌 것 같다고 말이야. 자기는 식구들 먹여 살려야겠대. 그래서 내가 찢쩍 뿜 거야. 그러니까 미안하다면서 준 게……<sup>64</sup>

자식이라는 존재는 아버지에게 학생운동을 그만두게 할 정도의 무거운 인 것이다. 『아버지의 해방일지』의 아버지가 딸이 산에 있을 때보다 군인이거나 경찰보다 더 무섭다고 한 것과 연결되는 지점이다. 그런데 예소연의 소설에서의 딸은 빨치산의 딸이 아니라 민주 85의 딸이다. 그래서 딸이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야 하는 친형 같은 것은 지니고 있지 않다. 오히려 딸 수민은 아버지의 세계를 동경하기까지 한다.

나는 아직도 NL이 무엇이고 PD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태수 씨와 엄마를 살아 있게 했다는 것은 알고 있다. 세상의 중심을 논하는 방식이었다는 것도 알고 있다. 나는 그런 것들이 부럽게 느껴지기도 했다. 똑딱 핀을 만들며 그들은 무슨 도모를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 나는 여태까지 도모해온 일들을 떠올리려고 노력하다가 포기하고야 말았다. 그렇게 거창한 일은 생전 해본 적이 없었다.<sup>65</sup>

민주 85라고 소개된 수민의 부모는 1980년대 학생 운동권 출신이다. 수민을 임신하고 그 세계를 벗어나 살았던 것이다. 딸 수민은 운동권의 주요 노선이었던 NL과 PD가 무엇인지는 이해하지 못해도 그 과거가 부모를 살아 있게 만든 것이라는 점은 알고 있다. 그런 점에서 그 세계에 대한 동경

64 예소연(2024), p. 228.

65 예소연(2024), p. 241.

을 갖고 있다. 딸이 보기에 부모세대는 자신과 달리, 사회의 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거창한 일을 하며 살아온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수민이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는 이런 아버지 ‘태수 씨’와 정치적 견해가 극도로 갈린다.

내가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나와 태수 씨의 정치적 견해는 극도로 갈랐다. 언젠가 태수 씨는 내게 정말 궁금하다는 듯 이렇게 물었다.

“결혼은 같이 하는 건데, 남자가 무조건 집을 해 와야 한다는 게 정말 요즘 여자들의 생각이니?”

언젠가 태수 씨가 보는 유튜브 쇼츠를 함께 본 적이 있는데 유독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왔다. 메갈이 어찌고 한국 여자들이 어찌고……. 나는 태수 씨에게 이런 것들을 정말 믿느냐고 물었고 태수 씨는 실제로 여자들이 그렇지 않느냐며 농담 아닌 농담을 했다.

자꾸 요즘 여자들 이야기를 하면서도 내가 요즘 여자들 중 한 명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태수 씨는 가까이 있는 나를 두고도 저 멀리 있는 요즘 여자들을 보는 식이었다. 그래서 유연한 노동문제에 대해 비판하면서도 불가산인 가사 노동 시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사회는 조리 있게 굴러 가야 하지만, 가족이라는 제도 안의 조리는 다른 문제였던 것이다.<sup>66</sup>

수민은 아버지 ‘태수 씨’가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제 때 국화꽃을 놓으면서 하염없이 울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 어렸을 때여서 정말 무서웠다고 하자, 태수 씨는 “정말 열렬히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태수 씨는 위 인용에서 드러나듯, 수민이 보기에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노동문제에 대해서는 비판하면서 가사노동 시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하지 않으며, 사회의 합리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주장하면서 가족

제도 내에서는 그렇지 못했던 것이다. 그리고 “요즘 여자들”을 내세우며 비판하면서 정작 딸인 수민도 요즘 여자들 중 한 명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는 태수 씨를 참기 어려워했다.

수민과 아버지의 태도의 차이는 ‘딸 둘을 둔 아버지의 장례식 상주 문제’를 두고 말하는 가운데서 어느 정도 해결된다. 장례식에 온 몇몇 노인이 태수 씨가 아들이 없으니 사촌 동생이 남자라는 이유로 상주 노릇을 해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말을 늘어놓은 것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태수 씨가 딸인 수민이 상주를 할 수 없는 제도가 몹시 못마땅하다고 하자 수민은 아버지와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눈다. “내가 하면 되지, 상주.” “그게 그렇게 되나?” “요즘 여자들은 다 해.” 이 대화는 아버지가 고통에 몸부림치는 순간에도 끝내 아버지의 인정을 받아내고 마는 수민의 모습으로 이어진다. “태수 씨, 내가 상주지? 응. 내가 상주야? 응. 누가? 수민이가, 우리 수민이가…….”<sup>67</sup> “요즘 여자들”을 태수 씨가 어쩔 수 없이 인정하도록 만드는 수민의 절박한 노력이 반영되어 있다.

조문을 온 수민의 이전 회사 차장님과의 대화는 이 ‘요즘 여자들’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을 포착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차장님도 무슨 운동인지 모르지만 운동을 했던 과거가 있다고 서술되어 있다.

나는 수민 씨가 조금 다른 사람인 거 대번에 알아봤어. 환경 운동이니 폐미 운동이니 그런 배지들 가방에 주렁주렁 달고 다니잖아. 차장님이 진지하게 폐미 운동이라고 말하는 걸 듣고 괜히 웃음이 터졌다. 그제 차장님 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묻자 그냥 그런 것들이 보기가 좋았다고 했다.

— [www.kci.go.kr](http://www.kci.go.kr)

“차장님도 요즘 여자들이 그렇게 싫으세요?”

“요즘 여자들? 우리 회사 요즘 여자들은 다 괜찮아.”<sup>68</sup>

수민은 환경운동도 하고 페미니스트 운동도 하는 ‘요즘 여자들’이다. 차장님과의 대화를 통해 수민은 차장님이 “요즘 애들, 옛날 애들 가리지 않고 맞춰가는 그 유도리”를 진짜 멋있다고 느끼며 나 같은 요즘 애들은 태수 씨 부부들처럼 “똑딱 편을 만들면서 무언가를 도모할 거리는 없었지만, 그래도 뜻이라는 게 있었다.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뜻, 의지, 그런 것들. 비록 미적지근할지언정, 중요한 건 분명히 그런 게 존재한다는 것이었다.”<sup>69</sup>라는 소중한 자각에 이른다. 586세대인 부모를 동경하며 사랑받고 자란 수민은 586세대들처럼 사회변혁이라는 거창한 것을 추구하진 않지만, 그래도 일상에서 소중한 것들을 지키고 삶을 제대로 살아가야겠다는 그런 의지는 지니고 있는 스스로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발견은 586인 태수 씨의 삶의 태도에 대한 비판적 성찰에 토대를 두고 스스로를 정립해가는 과정 중에 모색된 중요한 가치이다.

이 소설의 백미는 아버지 태수 씨가 제안한 장례식 계획이다. “아빠도 좀 이상한 건 아는데, 유자가 내 장례식에 와줬으면 좋겠다”<sup>70</sup>는 것이다. 옛날에도 “아빠는 죽으면, 장례식은 재미있게 하고 싶어.”<sup>71</sup>라고 했던 기억이 있다. 투병 중인 아버지는 장례식 이야기에 묘한 활력을 느낀다고 서술되어 있다. 장례식에는 아버지가 투병 중에 들려준 운동권의 여러 선배 동료들이 다녀간다. 특히 성식이 형이 왔을 때 수민은 아버지의 말투로 아버지가 빌려준 돈 300만 원은 수민에게 갚으라는 말을 하고, 성식은 그 돈이 왜 자기에게 온 건지 이야기해 준 후 그 자리에서 250만 원을 수민에게 이체해준

68 예소연(2024), p. 243.

69 예소연(2024), p. 244.

70 예소연(2024), p. 246.

71 예소연(2024), p. 245.

다. 성식은 수민에게 담배 한 대를 주며 50만 원은 담뱃값이라고 하며 같이 담배를 피운다. 수민은 성식에게 대신 부탁을 들어달라고 한다. 아버지가 기르던 개 유자를 장례식장에 데려와 달라는 것이 수민의 부탁이다. 성식은 아직까지도 미행을 당한다면 거절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성식의 태도 속에서 수민은 운동권이었던 시절 젊은 아버지도 두려웠겠구나 생각해본다.

수민은 “나도 태수 씨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sup>72</sup> 하고 아버지에게 말한 적이 있다. 아버지는 내가 어떤 사람이나고 되물었고 수민은 “모든 일에 횡방을 놓고야 마는 사람<sup>73</sup>이라고 했던 것이다. 장례식 마지막 날 발인 두 시간 전 그렇게 사라졌던 성식이 개 유자를 데리고 장례식에 나타나 장례식은 난장판이 된다. 수민과 수진은 아버지 태수 씨의 마지막 지령을 성식과 함께 수행한 것이다. “니들 진짜 미쳤니?”라고 소리치는 엄마에게 수민은 최대한 태수 씨의 말투를 흉내 내며 “공 여사, 자중하십시오. 우리의 적은 제도잖아.”<sup>74</sup>라고 한다. 성식은 끌려나가고 수민과 수진은 태수 씨의 영정 사진을 보며 함께 웃는 장면이 마지막이다. 이 소설 역시 아버지의 죽음과 장례식을 유머로, 장례식에 온 조문객들과 아버지의 과거가 단편소설의 분량답게 절제되어 그려져 있다. 이 유머는 정지아에게서 본 것이기도 하고, 거기에서 한발 더 나아간 예소연만의 것이기도 하다.

2020년대 한국 사회의 부녀서사를 대표하는 작품인 두 소설은 장례를 치르는 동시에 그 시대의 언어로 새출발을 꾀한다.<sup>75</sup> 죽음을 죽은 자에게 온전히 돌려줄 때 삶은 비로소 죽음과도 연대할 수 있다<sup>76</sup>는 김경옥의 언급은 『아버지의 해방일지』의 “삶은 죽음을 통해 누군가의 기억 속에 부활하는

72 예소연(2024), p. 238.

73 예소연(2024), p. 238.

74 예소연(2024), p. 248.

75 은희경(2025), 「외곽의 점등, 그리고 '개관'의 기세로」, 『2025 제48회 이상문학상 작품집』, 다산책방, p. 316.

76 김경옥(2025), 「무엇을 할 것인가」, 『2025 제48회 이상문학상 작품집』, 다산책방, p. 301.

것”이라는 문장과 만난다. 특히 예소연의 「그 개와 혁명」은 두려움을 마주하고 있는 ‘요즘 여자들’ 페미니스트 행보에 기대를 걸게 만들며, 이미 한국 사회의 변화 속에 그들이 실제로 주역이 되고 있다는 반응을 표출하고 있다. 이 요즘 여자들의 행보가 사실은 아버지 세대, 즉 586세대에 빚지고 있다는 것과 그들과의 연대를 통해 가능해질 것임을 이 소설은 말하고 있는 것이다.

정지아와 예소연 소설의 화자는, 한국문학사에서 이광수의 『무정』이나 이태준의 『사상의 월야』의 주인공처럼 고아가 아니며, 박완서의 『나목』이나 오정희의 『유년의 뜰』, 그리고 은희경의 『새의 선물』에서처럼 아버지의 부재를 겪지도 않고, 은희경의 『상속』에서처럼 아버지를 살해하고자 하는 욕망에 시달리지도 않는다. 두 작품은 모두 아버지가 죽었음을 선언하며 아버지의 장례식을 통한 애도의 과정을 담으며 연대하여 앞으로 나아간다. 딸이 화자가 되어 아버지의 삶에 대해 관찰하고 느낀 내용으로, 한국 사회의 이데올로기, 혁명, 사랑, 애도를 키워드로 하는 소설이다. 그런데 이 두 소설은 아버지가 살아 있는 동안 진정한 부녀서사를 만들 수 없었다. 이 부녀서사는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 혹은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확인된다. 사랑하고 사랑받았지만 아버지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부녀서사가 씌어질 수 없었다는 말이다. 죽음 이후 애도의 과정을 통해 비로소 새로운 부녀서사가 성립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4. 결론

한국문학사에서 아버지 부재와 관련된 최원식, 나병철의 연구에서 시작하여 “부의 부재나 부친 살해의 신화를 적극적으로 탈신화화하면서 부의 현전이 젊은 세대의 삶에 야기한 변화나 ‘부친살해’의 현실적 의의를 드러낸” 손유경의 연구를 넘어서는 곳에 이 글의 논의가 자리한다. 부녀관계 서

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정신분석학에 입각하여 바라보는 부친 살해 욕망이라고 할 때 이 논문에서 주로 다룬 정지아의 소설과 예소연의 소설은 두 편 모두 아버지가 죽었음을 선언하면서 그 장례식장의 에피소드들을 통해 소설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니까 살해할 부친이 없어진 상태에서 딸의 눈을 통과한 아버지의 삶이 적나라하게 그려지고 있으며, 에피소드들과 장례식 조문객의 등장,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 연대하는 삶의 중요성을 딸이 인식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두 소설의 장례식 모티프는 실제로 두 작가 모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에서 비롯될 뿐만 아니라, 알베르 카뮈의 『이방인』의 영향권에 있기도 하다. 해럴드 블룸의 ‘영향에 대한 불안’을 넘어서고자 한 곳에 이 소설들이 놓여 있음을 확인해 보았다. 영향 관계를 따지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텍스트의 무의식을 통해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서 자기 문학세계를 만들고 있는가에 주목하고자 했다. 『아버지의 해방일지』의 화자는 어렸을 때는 아버지와 자신을 동일시하다가 이후 육체적 조건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며 분리과정을 겪고, 평생 빨치산의 딸이라는 굴레 속에 살면서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세계를 조롱하거나 부정해 오다가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과의 여러 관계를 만나며, 빨치산 아버지의 삶과 그 이후의 삶에 대한 이해에 도달하는 과정이 장례식 3일장을 통해 자세하게 그려지고 있다. 그 이해의 과정은 매우 통렬하기까지 하다. 이해는 연대로 이어진다.

『아버지의 해방일지』의 화자와 비슷한 586세대 아버지와 페미니스트 딸이 화자로 나오는 「그 개와 혁명」 역시 장례식 과정에 아버지의 관계들과 화자의 관계들이 등장한다. 거대한 사회변혁을 지향하기는 했지만 가족제도 속 생활에서 비롯되는 낡은 인습을 버리지 못했던 아버지의 투병 생활과 장례식 과정을 그리고 있다. 『아버지의 해방일지』의 화자처럼 빨치산의 딸이라는 천형을 받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학생운동 중 지냈던 두려움을 알면서 “모든 일에 휘방을 놓고야 마는 사람”의 대열에 들어서는 ‘요즘 여

자들'이 그 화자에 투영되어 있다. 586세대와의 연대에 기반하여 '요즘 여자들'이 살아갈 시대가 기대되는 지점을 이 소설은 잘 그리고 있다.

카뮈의 『이방인』의 영향에 대한 불안이 새로운 부녀서사의 등장으로 어떻게 이어지느냐 하는 문제는 다음처럼 설명할 수 있다. 즉 카뮈의 『이방인』의 주제인 부조리를 활용하기 위한 정지아의 무의식적 태도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사회의 '빨갱이'를 바라보는 부조리한 눈과 그들과 연루된 사람들의 부조리한 삶도 인간의 삶임을 발언하고자 『아버지의 해방일지』는 씌어진 것이 아닐까. 그러려면 화자인 딸과 빨치산 아버지를 가로 지르는 매개가 필요했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설정된 이데올로기를 관통하는 매개가 부녀관계를 통해 형상화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장면이 아닐 수 없다. 예소연의 「그 개와 혁명」은 정지아가 이루어놓은 부녀관계 위에서 있다. 장례식을 혁명의 한 장으로 만들며 아버지 삶과 태도를 비판적으로 이어받아 아버지를 애도한 것이다. 이 논문은 알베르 카뮈의 『이방인』, 정지아의 『아버지의 해방일지』, 예소연의 「그 개와 혁명」의 겹쳐 읽기의 결과물이다. 정지아, 예소연 소설의 문제의식은 이 겹쳐 읽기 속에서 더 잘 포착되기 때문에 해럴드 블룸의 '영향에 대한 불안' 이론을 활용하였다. 한국 현대소설의 부녀서사는 현실을 직시하며 견고한 주체를 형성해 새로운 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 과정에 한국 현대사의 급변으로 인한 부조리한 모습과 2020년대 한국사회의 의식의 발전과 그 이면을 담고 있다는 점도 큰 의미가 있다.

## 참고문헌

### 자료

예소연(2024), 「그 개와 혁명」, 『문장웹진』.

예소연(2024), 「그 개와 혁명」, 『사랑과 결합』, 문학동네.

예소연 외(2025), 『2025 제48회 이상문학상 작품집』, 다산책방.

정지아(2022), 『아버지의 해방일지』, 창비.

## 논저

김수연(2021), 「부녀서사의 전통과 현대 콘텐츠의 서사적 분기」, 『문학치료연구』 61, 문학치료학회.

나병철(2003), 「여성 성장소설과 아버지의 부재」, 『여성문학연구』 10, 한국여성문학학회, 2003.

서경석(1991), 「빨치산의 딸에서 작가가 되기까지」, 『실천문학』 21.

손유경(2019), 「젠더화된 세대교체 서사를 패러디하기」, 『한국현대문학연구』 58, 한국현대문학회.

알베르 카뮈(2019), 김화영 역, 『이방인』, 민음사.

이승수·김용선(2019), 「심청전의 부녀관계와 서사구조」, 『동아시아문화연구』 79.

임지영(2022), 「〈아버지의 해방일지〉, 빨치산 아버지를 온전히 이해하기까지」, 시사IN 웹페이지, 시사IN, 2022.11.23.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979>.

장성현(1996), 「휠딜린의 『휘페리온』: 수정된 『베르터』? -해롤드 블룸의 영향 이론의 관점에서 본 『베르터』와 『휘페리온』」, 『괴테연구』 8, 한국괴테학회.

전승민(2025), 「사랑의 혁명성」, 『2025 제48회 이상문학상 작품집』, 다산책방.

정원술(2023), 「서정주의 영향에 대한 김수영의 불안: 「내리는 눈발속에서는」(1955)과 세 편의 「눈」(1956, 1961, 1966)의 대조비평」, 『한국문예비평연구』 79호,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정지용(2015), 「발자크와 플로베르: 문학적 영향에 대한 불안」, 『프랑스학연구』 72, 프랑스학회.

최원식(1987), 「여성주의와 아버지 부재의 문학적 의미」, 『또하나의 문화』 3.

해럴드 블룸(2012), 양석원 역, 『영향에 대한 불안』, 문학과지성사.

Choi, Kyeong-hee (1996), "When the Colonized Mother Speaks: Post-colonial and Maternal Narratives of Toni Morrison, Pak Wanso and Buchi Emecheta", Ph.D. diss., Indiana University.

원고 접수일: 2026년 1월 12일, 심사완료일: 2026년 2월 2일, 게재 확정일: 2026년 2월 8일

## ABSTRACT

# The Anxiety of Influence and the Emergence of New Father–Daughter Narratives

Park, Jinsook\*

This paper identifies the emergence of a new father-daughter narrative in Korean literary history, focusing on Jeong Ji-a's *The Liberation Diary of My Father* (2022) and Ye So-yeon's "That Dog and the Revolution" (2024). Both novels feature a daughter as narrator who, centered around her father's funeral, reflects on his life, realizes the traces he left on her own existence, and moves toward solidarity. Unlike previous, somewhat abstract father-daughter narratives, these works focu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n society's ideology and the father's life, showing how life is possible after the father's era.

Jeong Ji-a's *The Liberation Diary of My Father* utilizes anxiety about the influence of Camus's *The Stranger* as the text's unconscious. The novel directly references *The Stranger*, describes the sun, and deliberately uses the word "absurdity," revealing both the influence and the process of overcoming it. It uses *The Stranger* to speak about the absurdity surrounding both the father's life after the partisan activity and the ideology of Korean society. In Ye So-yeon's "That Dog and the Revolution," the narrator-daughter, through

---

\*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her '586 generation' father's illness, death, and funeral, not only comes to understand him but critically inherits his attitude. This mirrors an expanded version of the brief scene in *The Stranger* where Meursault feels liberation just before death and comes to understand 'Mother'. Jeong Ji-a completes her mourning through the funeral, while Ye So-yeon realizes her deep love for her ailing father.

Both novels, beginning with the father's death, transcend the pain of his absence or mere conceptual overcoming to arrive at a new understanding and mourning. They herald the emergence of a new father-daughter narrative significant in literary history, as they encapsulate the unfolding of modern Korean history and the development and undercurrents of 2020s society.

**Keywords** *The Stranger*, *Anxiety of Influence*, Narratives of Daughters and Fathers, *The Liberation Diary of My Father*, "That Dog and the Revolution", Absurdity, Mourning, Solidarity